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2022 남가주 국가기도의날, 나성순복음교회서 대면으로 개최

오는 5월 5일(목) 저녁 7시  
주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올해 남가주 국가기도의날이 5월 5일(목) 저녁 7시(미 서부시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남가주 국가기도의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다소 제한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에 따라 현장 기도회를 찾는 남가주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주복음방송과 CTS 아메리카, CGNTV, CHTV, 나성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c/LAFGCTV>)에서 기도회 실황을 생중계 해 미주 전 지역을 비롯해 전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올해로 71회를 맞이한 국가기도회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Exalt the Lord who has established us)”라는 주제로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도회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범죄인들, 행정 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반성경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 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취임하는 대



2022 남가주 국가기도의날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가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기독일보

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인권 회복 및 북을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건국의 기초를 놓았고, 미국의 역대 대

통령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국민들에게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했었다”며 “남가주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자마 강순영 목사는 “국가기도

의날은 미국의 전국민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매우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제는 우리 한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국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남가주 한인 성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 “바이든의 친(親) 트랜스젠더 행보, 종교 자유 위협할 것”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게재됐다.

기독교 세계관을 장려하는 미국 폴슨 센터의 회장이자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의 진행자인 존 스톤스트리트(John Stonestreet)는 칼럼에서 바이든의 성명이 “정치와 성별에 관한 새로운 진보적인 기준선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새롭고 실



2016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성소수자 인권 축제 ‘프라이드 런던(Pride London)’ 행렬. ©Ian Taylor/ Unsplash.com

질적인 위협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사무국(OPA)을 예

로 들며 “성명은 이른바 성별 긍정 치료가 “성별이 다양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전

반적인 행복을 개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성별 확인은 초등학교생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질문하도록 장려하고, 일단 질문하면,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몸을 거부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같은 주에서는 어린이가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아동외상스트레스네트워크(NCTSN)는 “성별 확인 케

어가 아동 학대나 의료 배임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스톤스트리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선언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성 혁명의 정치적 시행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최근 성명과 서한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의도하는 국가의 견해에 대한 모든 반대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의도라고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이민·비자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임의외교관 변호사  
(원)재미발행가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 신앙 자유 위한 기도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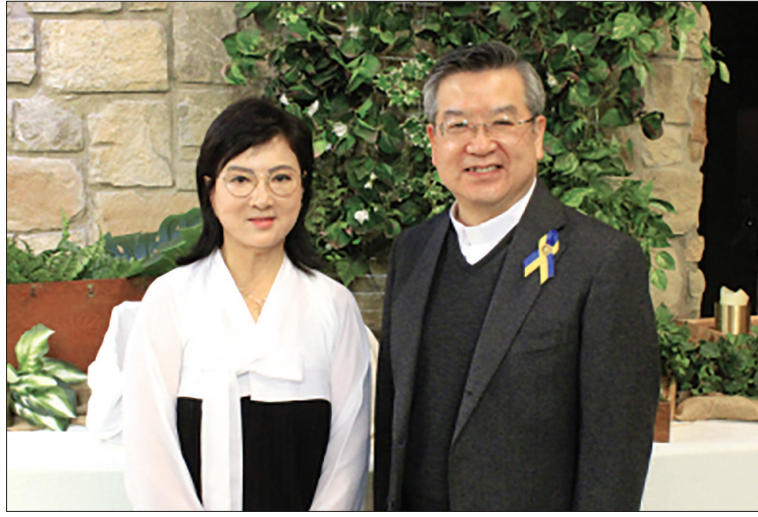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북한 정권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던 북한 여배우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복음 전도자로 미주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주순영 선교사가 지난 15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간증집회를 인도했다.

주 선교사는 북한 공산정권의 사악함과 주체사상 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선교사는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궁핍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북한 주민들의 가슴 아픈 실상을 소개했고, 특히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중국 공안을 피해 도망다니는 탈북자들과 인신매매범들에게 짐승처럼 팔려 다니는 탈북 여성들의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한 맺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둠의 땅 북한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인간을 우상화하며 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억압과 핍박 속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고, 북한에도 자유와 복음의 바



주순영 선교사와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기독교일보

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선교사는 이어 “복음 통일 의 가교가 될 탈북민들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북한동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직접 작사한 북한 복음성가 △하나님 품에 △십자가 그사랑 △주님 기다리는 마음 등을 열창할 때는 성도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으며,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 이올린 연주는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주순영 선교사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전문인신교학과를 졸업했고 총신 총회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다. 주 선교사는 현재 장대현은혜선교회 대표, 복녘사랑재단대표, G미션찬양단대표, G복음통일방송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음 통일’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인 장대현은혜TV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진유철 목사 신간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를 살아갈 성경의 지혜를 담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듯이 노아의 홍수도 그러했다. 우리가 자가격리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렇게 했다. 팬데믹 초창기 우리가 강제적으로 쉬어야 했던 것처럼 노아도 강제 안식에 들어갔다.

이 책은 대홍수라는 재앙의 시기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낸 노아를 통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제시한다. 저자 진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따뜻한 사랑, 순복음 목회자의 도전적 영성, 선교사 출신이라는 실천적 관점을 지니고 성경 곳곳에서 영적 가르침을 찾아내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아와 팬데믹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준다는 점이다.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팬데믹 시대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 최대의 재앙이라 부를만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임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문제에 반응하며 두려워 떨지 말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방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며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그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시대 팬데믹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다”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 진유철 목사는 파라과이 남미순복음텔레스테교회와 브라질 순복음쌍파울로교회를 담임했으며, 순복음세계선교회 중남미 총회장,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장,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미국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진유철 목사

김동욱 기자

## 한선희 목사 “신사도운동” 남가주 이단 대책 세미나 개최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안예교회 OC 채플, 벨리 채플에서 진행



주제 : 신사도운동 I - 2022년 5월 4일(수요일) 7:30pm  
신사도운동 II - 2022년 5월 11일(수요일) 7:30pm  
장소 : 주안예교회 OC Chapel  
주소 :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가 ‘신사도운동’을 주제로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4일(수)과 11일(수) 저녁 7시 30분 주안예교회 OC 채플(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5월 6일(금), 13일(금) 오후 7시 45분 주안예교회 벨리채플(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이단의 이해와 신천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한선희 목사는 “미주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세계기독교이단상담소장 한선희 목사

단을 바로 알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이웃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선희 목사는 “신사도 운동은 미주 지역의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818-363-5887



2022 - 2023 학년도

#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5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 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2@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2@joyfulccc.org) 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2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2년 8월 21일 예정

마감일 이후에접수된 신청서나 미비된서류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교회 선교계, 전세계 한인 선교사들과 연대

### KWWMF 강형민 대표회장 “창의적 선교 위한 글로벌 선교 리더십 구성할 것”

한인세계선교사회(강형민 대표회장, 이하 KWWMF)는 지난 18일부터 21일(목)까지,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KWWMF 2022 LA 서밋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효과적인 세계선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북미주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KWMC(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와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조영훈 사무총장), KWWMF(한인세계선교사회, 이근

희 사무총장)가 참가했으며, 전세계 56개국 본국 파송 교단 및 선교 단체 대표, 선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64명이 참석해 글로벌 선교 리더십의 부족을 인정하고, 글로벌 리더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선교 네트워크 확대 및 선교적 리더십 발전에 힘을 쏟을 것임을 다짐했다. 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선교를 준비하겠다고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가 주최로 남가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 2022 LA 서밋 컨퍼런스

발표했다.

KWWMF 강형민 대표회장은 ‘창의적 선교 전략’을 강조하며, 팀 선교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선교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KWWMF는 한인세계선교사지원

재단(KWWMCF, 김인선 사무총장)과 협력해 선교 정보와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영상, 미디어, 전략, R&D, 홍보팀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45년 KWWMF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2만 3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를 대표하는 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들과 선교 연대를 구성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김동욱 기자

## 미주백석대학교 제3회 학위수여식 및 이사장 취임식 개최



미주백석대학교 제3회 학위수여식 ©기독일보



이사장 김이수 박사

미주백석대학교(총장 손찬식 박사,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는 지난 18일, 학위수여식 및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생명력 넘치는 목회자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김소연, 이숙영, 오세경 전도사가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사장에 취임한 김이수 박사는 “매우 부족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미주백석대학교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한 이숙영 전도사는 “매 학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주시신 교수

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총장 손찬식 박사는 “미주백석대학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며 사람을 바꾸어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살아있는 영성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섬김의 사람, 사랑의 제자들을 양육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백석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미주서부노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로 신학대학(B.Th)과 신학대학원(M.Div.Th.M), 상담대학원(M.A.B.C)과 목회전문대학원(D.Min, D.Miss, THD) 과정이 있으며 가을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과 편입 수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수업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

문의 전화 619-733-9191 김동욱 기자

## “4-14세, 다음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김남수 목사

부터 4일(수)까지 남가주 애너하임 메리엇 스위트에서 개최된다.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는 4-14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컨퍼런스는 ‘4세부터 14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각지 선교지에 퍼져가고 있는 ‘4/14 윈도우 선교운동’에 대한 학술적 이론과 선교현장에서 적용을 소개하는 선교 전략회의로 진행된다.

각 교회 목회자 및 교육부 담당 교역자 및 리더십 400

어린 이 복음화를 위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가 5월 2일(월)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숙식을 위한 등 록비 500달러를 프라미스 재단에서 전액 후원한다. 주 강사로는 4/14 윈도우무브먼트 창시자 김남수 목사, 이사장 최완기 목사, 한국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등이 나선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는 “4/14 윈도우 사역을 통해 어린이 선교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회, 여성목사회, 전도회연합회, 장로협의회가 주최하고 4/14 윈도우무브먼트가 주관한다.

참가 신청 (714) 722-4805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중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Righteous Outlaw... 복음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무사), 조성현목사(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희목사(수리사), 송정현목사(복음선교사), 권준희목사(수리사), 신명진목사(복음선교사), 유은지목사(복음선교사), 김진희목사(KCC공동대표)

복음의 목회자 책의 편지자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중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선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제고대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생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2009년 개최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뉴욕 프라미스교회)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운동은 시작부터 루이스 부시 박사와 국제 리더십 여러분들과 함께 각 분야별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자료를 찾기 위해 출범한 4/14 윈도우 사역을 통해 어린이 선교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번에 OC 교협과 교계 여러 리더십들이 함께 한인 이민자들의 요람인 남가주에서 한인 목회자 대상으로는 처음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며 한국이민교회에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참가는 중 김남수 목사 드림(4/14 윈도우 뉴욕 프라미스재단) & OC 교회협의회 심상은 회장

4세-14세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5월 4일(수) 2박 3일간 (월요일 오후 등록 - 수요일 체크아웃)

장소 Anaheim Marriott Suites  
12015 Harbor Blvd., Garden Grove, CA 92840 (714) 750-1000

■ 내용 : 4살부터 14살 사이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세미나 ■ 등록비 \$500 불  
참고 : 자리의 제한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월 25일로 마감 예정.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셔서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위트를 부부 2인 1실 혹은 2인 1실 기본 (전액 프라미스재단 후원)

■ 강사 : 김남수 목사 (4/14 윈도우운동 창시자 뉴욕프라미스교회 원로목사), 최완기 목사 (프라미스재단 이사장), 이수훈 목사 (한국당진동일교회 담임 세계성서학원동분부장대표회장)

■ 4월20일 현재 등록접수 사항  
92 컵 등록 완료 / 48명 개인 등록 등 총 232명 등록 완료  
교회별 교육관련 리더십 등록을 환영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4월25일 마감 예정

■ 초대 대상  
각 교회 담임목회자 + 교육부 담당 교역자 + 교육부 리더십 (신청순 400 명)

온라인 신청은 큐알코드를 찍으시면 가능합니다.

■ 등록 및 문의 OC 교협 (714) 722-4805 심상은 목사 (텍스트 메시지와 카톡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최 :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 장로협의회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0**

###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독일 신학자인 본회퍼가 ‘옥중서신’을 통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다워진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8-20) 하셨던 말씀이 2천 년 교회의 본분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었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은 살아계셔서 교회에 임재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온 인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심을 믿는다.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을 위해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구원을 위해 우리 곧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또한 믿는다.

필자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자라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30년 목회 사역과 선교사역을 해 오고 있다.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다. 선전이 소천하셨을 때, 묘비에 교회 직분을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생각이 난다. 결국 가족들의 아쉬움 가운데 장자(상주)의 권한(?)으로 성도라 묘비에 새겼다. 8년이 지난 지금 산에 올라가 묘비를 보면서 새삼 성도라 표기한 것에 감사한 만족감이 넘친다. 그러나 ‘성도라’ 표기한 내 속 마음은 아버지 신앙에 대한 아들의 공경심의 표현도 되었지만 한 권 남아 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 모두도 이 칭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보여준 소극적 자세에 덧붙여 비겁한 교회들이라 하며 “한국의 개신교회는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며 울분을 터뜨렸던 모습을 보았다. 그 당시 필자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의 현지인 신학생들과 3가정의 선교사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감사하였으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나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도 역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다면 그 전체 기류에 압도되어 그분이 말한 ‘비겁한 목사’의 대열에 끼지 않았을까 반성해 보았다.

필자는 코로나를 2년간 겪으면서 ‘성도’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제자’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힌다. 환란의 때를 겪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교회를 ‘성도들’, ‘제자들’이라 말할 것이다. 코로나 2년이 지났을 뿐인데 한국교회에서 1,500곳, 미국 교회에서 15,000곳의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신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느끼며, 영적 긴장감이 더해진다.

그러나 감사하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역시 열방의 최전방 선교지에서 들려온 소식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슬람권과 불교권 등에서의 개신교 그리스도인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팀들이 코로나를 뚫고 이뤄낸 구원의 소식은 가히 승리의 소식이다. 한국과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는 교회의 문들이 쫄쫄 닫혀 있을 때, 중앙아시아, 아랍권, 중동 땅에서는 경고한 이슬람의 영을 뚫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많은 무슬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History makers’가 일어나는 역사가 전개되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열방으로 향하여 그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인류의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이다.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는 사라졌지만 진정한 제자들의 교회는 열방에 산발처럼 확장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⑧ “예수님께서 찾으신 수가성 우물 소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도, 수가성 우물가를 찾으신 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도 모두 획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대화하신 것에는 몇 개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 여인 사이에 놓였던 몇 개의 다리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인종의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다른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신앙은 많이 달랐습니다. 셋째로 남녀의 성별이 달랐습니다. 당시 남녀의 개인적인 만남은 용인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윤리적 편견을 뛰어 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윤리적 흠결은 예수님께서 무시하실 수 없는 장애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수가성은 그리스심(Gerizim) 산과 에발(Ebal) 산 사이에 있는 협곡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수가성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는 예루살렘과 갈릴 리가 연결된 도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사마리아와 지중해가 연결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가의 야곱 우물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고 여행 중이던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실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위대한 만남의 장소가 수가성 입구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의 위치와 기원에 관해서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혹자는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우물(창 29:1~9)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수가성이 세겜 근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샅던 세겜 땅(창33:18~20)에 야곱이 판던 우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물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우물은 삶을 위한 젖줄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식수가 되었고, 우물의 물로 농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물은 영적인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창16장에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난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창22장에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우물이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중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여행할 때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창24:)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나와 자신의 미래 아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창29)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

보라를 만난 장소도 우물이었습니다. (출2:16~22).

넷째로 우물은 은신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꾀할 때였습니다. 그 계락을 미리 알아차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 하였습니. 그런데 그들의 행적이 압살롬에게 발각되자 그 두 사람은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그 집 주인이 우물 뚜껑을 닫고 우물 뚜껑 위에 곡식을 두어 두 사람을 숨겨 줍니다(삼하17: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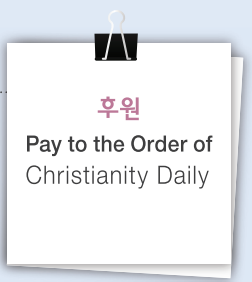
다섯째 우물은 은유적 표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는 시가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서 우물은 아내(잠5:15. 잠23:27)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69:16은 우물이 위험한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55:23은 우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언급합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야곱의 우물 위치를 그리스도의 입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과 무슬림의 전설과도 일치합니다. 둘 다 공히 야곱의 우물을 소중한 신앙적 자산으로 여기고 같은 장소를 지목합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그리스 정교회가 교회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이 지역은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의 후손들이 할당 받은 땅인 세겜 지역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수가성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야곱의 우물 주변에 수가성 옛터를 특정합니다. 반면에 세겜(Sychem)의 변형된 이름이 수가(Sychar)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가성의 위치는 현재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소에 대한 확증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남긴 다문화적 사역의 모범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제 8020 차

# LA 미주 목회자 아버지학교 15기

강사	날짜
1강 박세헌	5/15 (일)
2강 국윤권	5/16 (월)
3강 이정엽	5/17 (화)
4강 권준	5/22 (일)

오후 5시  
등록 마감일 2022년 5월 11일 (수)

LA 온누리교회  
743 S. Grand View St. LA, CA 90057

- 등록비 \$150.00 Payable to Father School
- 등록문의: 고평호 목사 310-896-6483, 성요셉 목사 818-331-2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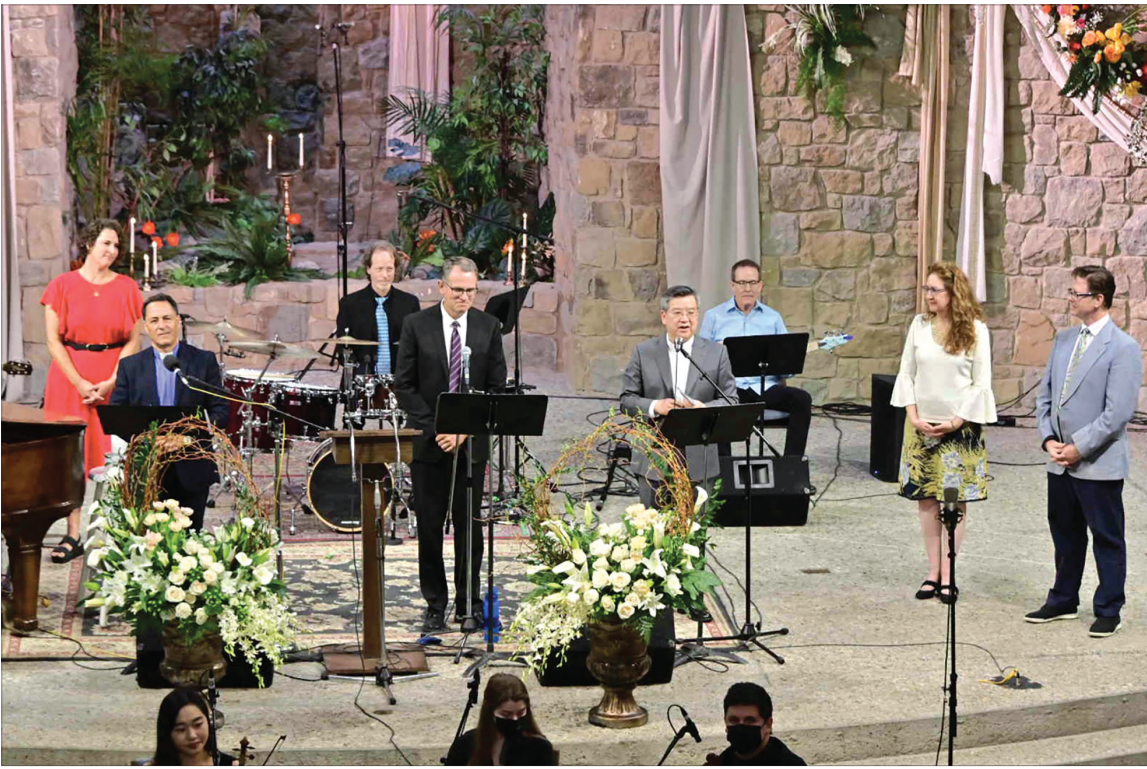
\*가능한 TEX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동분부  
DURANNO FATHER SCHOOL  
Family Builders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가족” 기쁜우리교회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



기쁜우리교회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올해 부활절 예배를 미국, 알미니안 회중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했다.

기쁨과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된 올해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하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

김경진 목사는 “서로의 ‘다름’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조화를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훗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예배의 감동을 전했다.

부활절 다민족 연합예배는 글렌데일 장로교회 스티브 목사와 알미니안 교회 하미 목사,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가 함께 순서를 인도했고, 연합 찬양대가 영어와 한국어로 찬양을 불렀다. 특히 기쁜우리교회 찬양대는 축도 후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마리아는 처음에는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으로 부활하신 구세주를 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삶을 갖게 됐다”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 살아날 것”

## LA 동부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17일 부활주일을 맞아 남가주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새벽예배를 드린 가운데, 엘에이 동부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LA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우영화 목사) 주최로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선호 목사(늘푸른 교회)의 인도로 송병주목사(선한 청기교회)의 기도 후에 동부지역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했다. 이어 박진석 목사(브릿지 교회)가 눅 24:1-12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천 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으로만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 신용환 목사(나성 한미교회)의 인도로 조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김신일 목사(유니온 교회)가 동부지역의 교회들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송재호 목사(할렐루야 한인교회)의 헌금기도 후, 우영화 목사



2022 LA 동부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기독일보

가 광고했으며 고승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드러진 헌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를 위해서 드러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NEWSTAR Realty & Inv. www.newstarrealty.com

도! 목! 2021년 10월 10일

**케리 리** (뉴스타/사이프러스) 에이전트! DRE 0196889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 Lee Realtor Cell 714.345.4989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사데교회 언급한 이찬수 목사 “특정 교회 두고 설교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새에덴교회서 열렸던 예정 합동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전국 기도회’서 설교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

## 최근 새에덴교회서 열렸던 기도회 당시 자신 설교 관련 해명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전국 기도회’ 당시 자신의 설교에 대해 “특정한 교회를 두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목사가 설교했던 해당 기도회에선 이 목사 외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오정현 목사(사랑교회)도 설교했다. 이 목사의 설교 순서는 소 목사에게 두 번째였다.

이 목사는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곧 주님께서 사데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

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신 것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도 같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닌지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 목사는 특히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여러 순서 맡고 여러 좋은 거 나오고 엄청난 것들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정말 두려움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새에덴교회 처음와 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건축했을까,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든다”며 “너무 귀하다.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런데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건가, 여기에”라고 했다.

이 목사는 “유럽에 거기(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던데, 안 두렵나?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라고 했다.

이후 이 같은 설교 내용이 논란이 된 것이다.

이 목사는 17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10일 기도회에) 갔더니 너무 은혜로운 거다. 정말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은혜로운 분위기에 취해서 저도 엄청 은혜를 받았다”며 “은혜 받으면 설교가 세지더라. 엄청 세게 설교했다”고 했다.

그는 “사데교회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죽었다는 평을 받았던 사데교회처럼 될 위험이 있다, 모두가 회개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이가 그에게 “목사님이 그 교회 엄청 잦다면 서요?”라고 했다는 것. 이 목사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까기는 뭘 까나. 설교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도로 까면 안 된다. 정치도 아닌데, 설교가 그러면 되나”라고 했다.

이 목사는 “사데교회를 향한 그 설교는, 더군다나 그 교회(새에덴교회)는 장소만 제공해 준 거고 대상은 전국에서 모인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이라며 “설

교는 그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를 두고 특정인을 두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오해가 있었나, 굉장히 의아했었다. 그러나 저는 또 그 과정에서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교훈을 받았다”며 정말 더 겸손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당시 기도회 후 그 자리에서 함께 메시지를 전했다던 다른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한 의견과 그의 생각을 물어온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소 목사는 여기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고 한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 전한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소 그 말씀이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도전 받고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

이대웅 기자

# 한국교회, 지난 25일부터 교회 내 취식 가능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교회에서도 이때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내 취식을 25일부터 재개한다는 건 이미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됐던 것이었다.

중대본은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

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 회복이 재개된 지 1주일이었다. 거리로 나온 인과와 또 활기를 띠는 상가들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일상 회복을 기대하셨는지, 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



@City Church Christchurch/Unsplash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셨는지를 방역당국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보다도 약 40% 정도 감소

하고 있다. 또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

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 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또 관련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당신의 올스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5세 이상이라면 COVID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자녀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함께  
아껴냅시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돌리자. 이만2세를 돌리자. 이만2세를 돌리자. 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e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중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름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화평과 화해가 있으며 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유초중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중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가정)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기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미 남침례교, 우크라이나 구호 누적 모금액 800만불 넘어



루마니아 수체아바 시의 기차역에서 미국 남침례교 재난 구호팀(SBDR)의 자원 봉사자들(왼쪽)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초콜릿, 우유와 주스 상자를 제공하고 있다.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미국 남침례교(SBC) 산하 기구인 국제선교위원회(IMB)의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위한 누적 모금액이 800만 불을 넘어섰다.

남침례교 교단지 뱍티스트프레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구호 봉사를 위해 동유럽으로 파견된 침례교 재난 구호팀의 사연을 보도했다.

올해 나이 71세인 미키 에버트(Mikey Ebert)는 루마니아 수체아바 시의 기차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과 어린이들을 환영하며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루마니아에 파견된 자원봉사팀은 24시간 내내 기차역을 지키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료 기차표를 나눠 주고 있다.

SBDR 자원봉사자인 클라라는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난민들을 버스에 태워 실어 날랐다. 당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국경으로 이동해야 했고, 클라라는 20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며 기차에 탑승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왔다.

40년 경력의 은퇴 교사인 에버트는

클라라와 루마니아 침례교인인 마르셀라와 함께 기차역에서 주스 상자를 나눠주며, 기차를 기다리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나이 든 한 난민 여성은 기차역에 앉아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전날 밤 이 여성의 집 근처에는 로켓 4발이 떨어졌고, 그중 하나가 폭발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던 이 여성은 그날의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린다고 호소했다.

에버트는 “나는 그녀를 위해, 러시아 국민을 위해 기도했다”라며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그녀와 그녀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은 15일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1천964명이 사망하고, 2천6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美 오클라호마주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 시행



오클라호마 케빈 스티트 주지사가 낙태금지법인 상원법안 612에 서명한 후 이를 들 어보이고 있다. ©보도화면 캡처

미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 주지사 케빈 스티트는 12일 모든 형태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의하면, 오클라호마주에서 시행되는 모든 낙태시술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만 예외로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날 “오클라호마 케빈 스티트 주지사(공화당)가 상원법안 612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생명을 존중하는 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친생명단체인 ‘오클라호머스 포 라이프’, 남침례회 총회, 오클라호마시 로마가톨릭대교구 및 기타 기독교계와 임신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지 90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 유효하며, 미국 역사상 거의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마조리에 대네펠서(Marjorie Dannenfelser)는 “오클라호마주가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 중 일부를 제정하여, 연

간 3,8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주의 이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주정부가 최종 통과시킨 낙태방지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의회가 앞으로 ‘여성건강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사키는 “오클라호마주의 이번 입법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국적인 경향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여성 국민이 자신의 미래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여성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파기하지 않은 이후, 미국에서는 최근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엔 애리조나주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사우스다코타주와 테네시주도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함께,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켄터키주, 남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위 사진은 아래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켄터키주가 최근 생물학적 남학생이 여학생의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다수의 입법부는 민주당 앤디 베쉬어(Andy Beshar)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여성 스포츠 공정법'으로 불리는 상원법안 83은 학생들이 자신의 출생 성별에 해당되는 스포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운동 선수의 생물학적 성별은 출생증명서 또는 특정한 의료전문가의 진술서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베쉬어 주지사는 지난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켄터키 주의회가 13일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상원에서 29대 8, 하원에서 72대 23으로 통과됐다.

보수단체인 미국 원리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PP 테리 실링 회장은 "켄터키주의 여성 운동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켄터키주의원들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보호가 없는 다른 주의 지도자들도,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이 운동에 동참하

길 지속적으로 권장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켄터키지부는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을 비판했다. 사무엘 크랭크소 대변인은 "새 법안이 평등한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트랜스젠더 소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이를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인권법 제IX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무효화로 켄터키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5번째 주가 되었다. 다른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테나,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한편 이날 켄터키주의회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안 HB3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도 무효화했다. 이 법안은 우편 주문 낙태약도 금지하고 의사가 산모를 지역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월트 디즈니의 극좌 이념 편향, 어떻게 볼 것인가

LGBT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월트 디즈니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칼럼을 통해 소개됐다.

이 글을 쓴 제프 크루어(Jeff Crouere)는 정치 칼럼니스트이며, 미국 TV 시사 프로그램 '링사이드 폴리틱스(Ringside Politics)'의 진행자다. 크루어는 칼럼에서 "디즈니는 가족 친화적 여행지라는 명성 때문에 이러한 높은 지위를 얻었다"면서 "불행히도, 지난 몇 주 동안 디즈니의 입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원인으로 그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학부모의 교육 권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 밥 채펙(Bob Chapek) 디즈니 최고경영자를 지목했다.

그는 "언론 보도와 달리, 이 법은 성별과 성적 성향에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유치원생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의 순수성을 보호하며, 교사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과목의 도입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전했다.

또 그는 "채펙과 디즈니 경영진은 새 법안에 격분했다.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는 이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불렀다"면서 "그는 LGBTQIA(성소수자) 공동체 회원들에게 더 강력한 동맹이 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법안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고 했다.

또 "새 법에 대응하여, 디즈니 임원들은 가상 회의를 열었으며, 이 영상 중 일부는 대중에게 유출되어 그들의 좌편향 의제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즈니 테마파크가 고객응대 인사를 "신사 숙녀 여러분" 또는 "소년소녀분들"이란 말 대신 "모든 나이의 드림러들(Dreamers)"로 바꿀 계획이며, 카레이 버크 디즈니 사장은 "우리 이야기에 많고 많은 LGBTQIA 등장인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지지 표명했다"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월트 디즈니 오픈닝 비디오

또 "디즈니 프로덕션 코디네이터인 앨런 마치는 '귀여운 이야기'를 탐구할 것을 약속했고, 총괄 프로듀서 라토야 라베로는 '공개적인 게이 어젠다'라는 점과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귀여운 성(남자 동성애성)'을 넣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크루어는 "당연히 이러한 폭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충격을 빠뜨렸다. 사랑받는 어린이 프로그램, 캐릭터, 테마파크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좌파 진보주의의 요새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디즈니의 극좌 이념이 공개되자,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디즈니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맷 게츠 하원의원은 디즈니가 받는 불공정한 주 법인세 허점을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크루어는 디즈니사 임원과 경영진이 플로리다주 법안에 격분하는 반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장되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 10곳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공산주의 중국의 억압적인 정권도 수용하는 월트 디즈니는 완전히 위선적이고 부정적이다"면서 "만일 우오크(WOKE) 의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그러한 국가로 확장하거나,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 예배 (1부) 오전 9: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OC제물 주일 9:00, 11:00, 2부 예배 오후 8:00, 10:00, 12: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침례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월요일 6:00, 19514 Rivalo St., Northridge, CA 91321, 818-808-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대흥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9성경학교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오렌지카운티 지역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양 오후 7:30, 평일양예배 오전 11:30, 영아침례회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침례회 오전 9:30, 11:30, 새벽예배 주일 오후 5:30

**남가주 베델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일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코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hils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하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20대 북한군인, 체제 충성 현저히 낮고 탈영도 빈번



2018년 2월 건군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여한 북한 군인들. ©SBS 캡처

## NKDB,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 특별보고서 발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 입대가 주었던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뇌물·식량 착복 등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군의 성폭력 폐단도 여전하고, '장마당 세대' 군인들의 충성심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는 올해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1대 1 심층 면담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기 변화상을 영

역별로 심층 조사했다.

NKDB는 "2018년 발간한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도출된 북한군 인권의 구조적 분석에 기반하여,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내부 실태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 군 입대, '계층 상승 사다리' 가치 하락

조사 결과, 사회 발전 토대로서 '군 입대'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기 눈에 띄게 하락했다.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과 낮은 처우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군복무' 후에 '입당'을 하는 비율이 30~50%로 낮아졌다. 입대를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가 줄어든 결과, 2015년 4월 여성의무 복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 군내 비리 척결 방침에도 개선은 미지수

군 내부에서 만연한 '뇌물' 실태도 군 기강 해이에 크게 작용했다. 군인들은 '외출', '면회', 심지어 '조기 제대'를 하기 위해서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또한, 식량 조달 과정에서 간부 착복으로 인해 제공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군 부대 내 비리를 척결할 것,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에 대해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통제 및 사상 교육 강화 조치

김정은 집권 이후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불시 점검의 횟수를 늘려 월 2~3회 이상, 취침 시간이 이후에도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군인들의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탈영이 잦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군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

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

### 국가 건설에 인력 투입, 과도한 노동착취

NKDB는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의 가치를 내세움에 따라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종합적으로 NKDB 북한군인권 감시기구는 안전한 근로 환경과 기본적인 수면시간 보장, 식량 공급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북한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며, 기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군 복무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 동유럽 UMC 연회, 탈퇴 후 보수 교단 GMC 합류

동유럽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한 지방연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새로운 교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연회는 이달 초 만장일치로 UMC를 떠나 5월 공식 출범하는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연회를 감독하는 중남부 유럽중앙연회 의장인 패트릭 스트라이프(Patrick Streiff) 감독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시도는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스트라이프는 "연회 감독으로서 교회법에 분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표는 불가능하다. 연회 구성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회원들은 나의 감독 없이 회의를 계속했고, 다니엘 토폴스키(Daniel Topalski) 감리사를 의장으로 선출해 결의안을 논의하고 공개 투표해 (분



'성 베드로 연합감리교회' 성전 모습.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리)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 UMC와 함께 교단을 탈퇴하는 상호존중적인 방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불가리아 교회가 교단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중남부유럽중앙연회와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가리아-루마니아연회는 "우리는 UMC에서 탈퇴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

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결권 행사 절차와 조건을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연회의 이러한 결정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불가리아-루마니아연회에 따르면, 구역 내 교회는 UMC에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이러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유엔뉴스는 "불가리아-루마니아연회의 회원 숫자는 1,500명 미만이지만, 회원 1,300만 명인 연합감리교회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고려할 때, 탈퇴 움직임은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CP에 따르면, UMC는 지난 몇 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분열

을 거듭해 왔다.

UMC 장정은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성직자가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안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UMC는 당초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0년 총회에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우호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총회가 2022년 가을로, 이후 2024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세계감리교회(GMC) 측은 그 결정을 비난했고, 총회 이후 시작하기로 했던 이전 계획보다 이른 5월에 보수교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강혜진 기자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SWM 선교회 채용공고

애나하임에 위치한 SWM 선교회에서 함께 할 Full time 사무직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재정 / 행정 담당
- 근 무 지 : Anaheim, CA
- 근무시간 : 월-금 (9am~6pm)
- 지원자격
  -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신 분으로 세금신고 가능하신 분
  - MS Office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한국어와 영어로 이메일과 SNS 소통 가능한 분, 킥북 사용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 추천서
- 지원마감 : 2022년 5월 10일
- 문의 및 접수 : general@swmnet.org (website : 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 담임 목사 청빙

한빛 장로 교회는 California El Monte에 소재한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된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시어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이상) 졸업하신 분
  - 2) 경력 :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시무하신 분
  - 3) 소속 : PCUSA소속이시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4) 언어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 5) 신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PCUSA Form PIF, 교단E-mail을 통해서, 또는 자필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1통
  - 3) 추천서 2통 (목사, 장로 추천서 각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4)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 (동영상 file 또는 link)
  - 5) 신앙 고백서 1부
  - 6) 목회 계획서 1부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첨부)
- 제출 마감일시: 2022년 5월 15일
- 제출처
 

우편 :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PNC)  
11608 Valley BL, El Monte, CA 91732  
E-mail: dlpcpcusa@gmail.com
- 기타
  - 1)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문의는 E-mail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

마태복음 12:46-50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외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심리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치달고 있는 반면 예수님과 반대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46절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 되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열심히 말씀하고 계실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다고 전하니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 비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모친 마리아나 동생들이 듣기에 상당히 서운해질 만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기 위해 오신 공적 사명자의 입장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소망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육신의 세상조건보다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영혼이 더 나은 자격으로 내세 소망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살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

수님이 이단인줄 알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과 만난 이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거듭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는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져야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로 인하여 방언도 하고 이적기사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며 빈정대는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던 때의 말투와 생활, 행동이거나,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활모습이 영적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죽은 상태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있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투자하고 희생,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시민권자로 바뀐 사실과 육체의 본능적으로 살던 인생이 영적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성령이 이끌어 쓰임받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내세소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야로 알고보고 믿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55-57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중략)...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나서 부부로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혈연관계로

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임당하실 때 하늘이 먹장같은 구름으로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며 죽은 시체가 일어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모친과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10여차례 만나주시고 예루살렘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팔 하나씩을 붙들고 올라가면서 “너희 가운데서 올리위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될 터인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하셨습니다.

6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그중 480명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길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이며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40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

사 성령을 파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 모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형제고 자매, 모친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27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서둘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치 않고 고집으로 버티다가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못받은 사람은 목사고, 장로라도 다 지옥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9-11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십시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정예(M.A.) 신학박사, 석사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1-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교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학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강준민 칼럼

# 변화와 성숙의 아름다움

저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와 성숙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변질은 추한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완숙을 의미합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무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야 동(動)하는 어린 생명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숙한 아이들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숙한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기쁩니다. 유명만 교수님은 성숙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 ‘미(美)’는 ‘양(羊)’이 무럭무럭 ‘커가는(大)’ 모습을 보는 주인의 흐뭇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양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매일 매일이 다르다. 똑같은 양도 짧았던 털도 길어지고, 덩치도 커지면서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시는데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변화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변화됩니다(골 1:6).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딤후 2:1)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히 4:12). 우리가 말씀과 접촉할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읽어줍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를 알려 줍니다(딤후 3:16).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때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은

혜의 영이십니다(히 10:29).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요 15:26).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고전 2:10).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 주십니다(고전 2:12).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십니다(고후 3:18). 성령님의 도움 없이 육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넷째, 좋은 만남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만남은 결과를 낳습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좋은 만남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성품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다섯째, 고난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를 통해 우리 존재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우물에서는 고래가 살 수 없습니다. 고래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존재가 삽니다. 큰 그릇에는 큰 존재가 삽니다. 우리 그릇이 커질 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은 내용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 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릇에 좋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남다른 지혜와 통찰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변화와 성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숙은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 연재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돌이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당시 몸에 지니고 다니던 단

검을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함께 다니던 동료가 전도를 너무 잘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누구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맹세문을 쓰고 손도장까지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미 자녀 삼을 이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건만,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해 단검을 차고 다니며 여차하면 죽일 생각을 했으니 이보다 더한 불충이 어땠는가. 참으로 그 시절은 내게 너무나 창피한 기억이 많은 시절이다.

사실 당시 복음을 전파하려 다닌다는 말은 구실에 불과했다. 나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무엇을 전파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강쾌 두목쯤으로 모시고 도적질과 싸움질을 일삼았던 것이다. 내 생각과 의지, 지혜로 도적질하고 싸움질을 하고 다니니 내 영혼이 온전할 리 없었다. 때마다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에 포위되어 순간순간 지옥을 살았다. 그렇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죄악의 늪으로 깊이 빨려들어 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나서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타국의 객이 되어 떠돌게 하시며 광야 훈련을 시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져 악한 길로 갈 때 심판 대신 고

난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 이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을 바쳐 하나님의 위업에 사용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골루콘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골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100% 정품  
100% 만족  
100% 신뢰

60 capsules  
Made in U.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칼레이트 시퀀스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 선악판단의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시작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인데, 자기 사랑, 자기 몰입, 자기중심적 자아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히틀러나 지금 침략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같이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옳다고 하며 스스로 세상의 기준이 되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죄를 환경이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지었다는 것은 부족함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이나 무지가 죄야!' 이런 말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무지한 사람이 공부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여도, 못 배우거나 배워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죄인인 내가 있으면 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내 눈이 밝혀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과 비슷한 '분별'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별은 일처리 방법을 아는 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가 넘는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얇은 옷을 입고 나가는 지혜가 분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도리를 하고 나온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관심병자인가 봐, 이상한 사람이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니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악을 자기가 정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목수술로 인해서 칼을 대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더운 날씨에도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불완전한 내가 맘대로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면 죄가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세상과 육신대로 살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2:1-2)

철야기도 시간에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한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장

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유머입니다만 새겨들을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탕한 사람과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죄인 같아 보입니까? 방탕은 죄라는 것을 깨닫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의롭게 여기기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4:5)

###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

#### 히브리서 12장 14절 - 15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삶에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삶에 도전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거룩함의 자리에 설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써 자신의 사고와 육신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 참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와같은 도전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길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요점은 분명하다 그 요점은 바로 "참된 거룩함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 만 주를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는 그리스어로 "후스테레오(hustereo)"라는 단어인데 성경 사전에서는 "열등하다, 못 미친다, 뒤처진다,



송 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궁핍하다, 실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행하여 거룩함의 참된 열매를 맺으면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룩한 대로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줌을 말씀하고 계시다.여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베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붙들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해야 우리의 신앙이 파선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은 죄의 소욕을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죄의 종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현실에 삶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에 교훈을 붙들고 이제부터 주님에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Ag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환연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RE\_FRESH CHURCH 리프레시 처치 <팬데믹 이후의 교회를 찾다>

교회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



이상훈  
교회성장연구소 | 272쪽

영적 야성을 깨우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선교적 안목으로  
꿈을 꾸기 위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책

선교적 DNA를 붙여넣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 책

교회성장연구소가 이상훈 교수(AEU 미성대 총장)의 신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코로나19 시대의 사역 트렌드들을 분석한 후 한국보다 빨리 오픈된 북미 지역 교회의 케이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상훈 교수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속 시원하게 느낄 솔루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그러한 지점에서 발생했다. 적대적이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했다.

그는 “시대에 함몰되는 다수가 아닌 시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꿈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시대를 읽는 냉철한 안목을 가졌는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을 꿈꾸고 있는지, 과거를 맹종하고 답습하는 사역이 아닌 새롭고 창의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땀과 눈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

이다”라고 했다.

이어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에 선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이라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하자는 말이 아니다. 세속 문화에 융합되어 힙(hip)한 교회가 되자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 교회는 변화하고 갱신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 관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평상시 교회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켜 왔던 신앙 공동체라는 점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며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흠여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교회들 말이다. 교회의 핵심 사역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재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영적 콘텐츠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그것이 찾아가는 사역의 첫걸음이다”라고 했다.



Check Point

- ✓ 우리는 사명 중심인가?
- ✓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역의 초점을 조정하고 있는가?
- ✓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며 사역하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가?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안티프레질 교회가 되라

된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몇 마디로 압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운동이다. 마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과 사상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물론 최초 주창자들이 말했던 깊고 고상한 신학적 의미는 퇴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선교적 교회는 더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치열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적 사역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다.

그는 “시애틀의 소마 커뮤니티의 경우는 기존 교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띠는데, 이들은 애초부터 소그룹 형태로 시작해 여전히 같은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분가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소마 커뮤니티는 미국을 넘어 멕시코, 일본까지 확장되었다. 이들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자신이 곧 교회라는 인식 속에서 주중에도 계속 연결되고 초청해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가족과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up), 내부적으로는 성도들과 하나되고(in), 외부적으로 이웃을 섬기는(out) 사역을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마치 선교지 한복판에 있는 상황과 같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회심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교회에 호감을 느끼고 찾아오는 사람도 급감했다. 미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살

아남을 것이다. 동시에 지금이 야말로 참된 복음 전도와 선교가 가동될 때이다. 교회가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만큼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현재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모두를 흥미하게 만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초점을 맞춘 세상은 이 전의 세계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역과 목회 원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상상력 없이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금 우리는 꿈을 꾸야 한다. 이 책을 통해 교회를 변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적 상상력과 변화에 대한 용기를 얻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훈 교수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호주에서 성경 교육과 선교 훈련을, 미국 풀러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과정을 마쳤다. 현재 미국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미성대) 총장,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겸임 교수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대표 디렉터,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리폼처치>, <처치 시프트>, <리싱크처치>, <리뉴처치>가 있으며 공저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메이의 새빨간 비밀> (下)

# 조상숭배, 동양에선 사라지는데... 서구 미디어는 왜 미화?

동아시아의 조상숭배 풍습에 대한 서구의 인식 변화 과정에는 우상과 미신 섬기는 미개함 표본 여기다가 종교다원주의와 PC 운동 등 영향으로 분위기 바뀌어 조상숭배 서사 내세운 영화, 동아시아 몰이해 보여줘

◆서구 미디어가 본 조상숭배: 동아시아 종교문화에 대한 서구의 호기심이 집중된 조상숭배 풍습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는 중국의 전통 종교문화를 이루는 세 축(도교, 유교, 불교) 가운데 도교와 유교적 요소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교적 종교문화의 요소는 주로 메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당에서 이루어지는 조상 숭배 풍습을 통해 잘 드러난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메이 가족의 조상신을 모신 중국식 사당은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의 투어 장소로 이용될 만큼,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소개된다.

서양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중국의 종교 전통은, 소림사로 대표되는 불교의 사찰 문화를 제외한다면, 단연 제사로 대표되는 조상숭배 풍습이다.

할리우드와 미국 OTT 콘텐츠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소개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거의 예외없이 등장한다. <물란>에 등장하는 사당 조상신들의 회합 장면과 불교의 '나무아미타불' 같은 염불 글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태극, 팔괘, 부적술, 진법 등 도교의 술법(術法)과 연관된 요소들이 미국 콘텐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무래도 서구 및 영미권 관객들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불교와 조상숭배보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질적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듯하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도 도교적 요소는 기본적인 기 사상이 반영된 정도로 그치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국의 전통 종교문화에 대한 서구와 중국의 호기심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다.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국의 전통 종교문화를

묘사할 때는 사실 불교나 조상 숭배보다 도교의 술법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와 달리 기독교적 영혼 이해를 1,600년 이상 간직해 온 서구 문화권에서는 조상숭배라는 풍습이 직관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사실 서구에도 조상숭배와 비슷하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숭배하는 종교문화가 있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발흥하고 전파되기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생전에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이들의 영혼이 죽은 뒤 신좌(神座)에 오른다고 믿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황제 숭배 종교도 이 사상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서구의 조상신 숭배사상은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인과 성유물 숭배 사상으로 잔존해 있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과 함께 개신교 내에서 사라졌다. 이후 조상숭배 사상은 서구문화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전통이 되었고, 더 나아가 우상숭배로 규정되면서 아예 기피되는 풍습이 되었다.

◆동아시아 현실 속 조상숭배: 쇠퇴 혹은 소멸이 예정된 조상숭배 풍습과 제례 문화

그래서 조상숭배 풍습은 처음 선교사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선교를 하러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현지인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서양인 선교사들은 각자 신앙과 신학적 소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수가 조상숭배 풍습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배격했다.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한 발 앞서 동아시아 선교활동을 펼친 가톨릭 교회 측에서는 선교사 개인의 견해에 따라 조상숭배에 대해 어느 정도 유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보다 늦게 활동을 개시한 개신교 선교사들



캐나다에 자리잡은 보수적인 중국계 가문 소녀의 사춘기 성장 이야기를 다룬 디즈니-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은 거의 예외없이 조상숭배 풍습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조선에 들어온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조상숭배와 제사 문제로 조선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무당들이 주도했던 샤머니즘 풍습 못지않게 조상숭배 풍습도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특히 조선인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는 조상숭배 풍습과 제례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후안무치한 믿음으로 매도하게 만드는 제일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100여 년 전, 아니 60-7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조상숭배와 제례 문화는 서양인들의 눈에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미개함의 표본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그래서 서구의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조상숭배는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대변하는 요소로 채용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서구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물란>이나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서와 같이, 중국의 조상숭배 풍습이 우상숭배에 대한 기독교적 거부감이나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해서 묘사되지 않는다. 지금은 동아시아의 조상숭배 풍습이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을 대변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 전반부에서는 메이 가족의 사당 운영과 조상신에게 향을 올리며 절하는 풍습이 메이를 얹어매는 전통 문화의 족쇄로 그려진다. 그러다 메이와 어머니 밍이 서로의

성장 배경에 자리잡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가면서 메이 역시 가족의 사당 운영을 돕고 조상숭배 풍습을 이해하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된다.

이런 인식 변화는 당연히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 약화가 초래한 결과이다. 동아시아의 조상 숭배 풍습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명백한 미신이며 우상숭배 행위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에 치중하는 작금의 미국 사회에서 중국의 조상숭배 풍습을 개화되지 않은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로 간주된다.

백인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적 시각이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견해라는 날선 비판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작 서구 문화권에서는 동아시아의 조상숭배 사상을 존중해줄 준비가 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조상숭배 풍습과 제사 문화가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중이라는 점이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동아시아 4개 국가는 이미 고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개인주의 문화의 발전,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전통적 가족체계의 붕괴 때문에 유교적 조상 숭배 사상이 날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 급증과

비혼, 비출산 추세 강화로 젊은 세대에서는 더 이상 제례의 존속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사를 받들 자녀를 아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실인 것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앞서 있지만, 일본, 중국, 대만 역시 빠른 속도로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

이미 조상숭배 풍습의 본산지에서는 그 쇠퇴와 소멸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미디어 콘텐츠 업계는 이를 동아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의 핵심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처사는 전통 문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의도를 고려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현실을 예견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

이런 의미로,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서 유독 중국의 조상숭배 풍습을 주된 서사 요소로 내세운 처사는 미국인들뿐 아니라 도미 시 감독을 비롯한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동아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

조상숭배 풍습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들과 그 자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룰 수 없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Tongdok Bible APP

35년 동안, 성경통독 대중화·학문화·세계화

# 드디어 미국 교회 성경통독 시작하다

**Tongdok Bible APP**  
역사순 편찬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KJV (King James Version)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무료 다운로드  
·아이폰 App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안드로이드 Play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Dr. James O. Davis  
Global Church Network 설립자



Dr. Leonard Sweet  
Drew University 교수



Pastor Leon Fontaine  
Canada, Springs Church 담임목사



Dr. Glenn Burris  
LA, Foursquare Church 담임목사



Dr. Kenneth Ulmer  
LA, Faithful Central Bible Church 담임목사



Dr. Craig Keener  
Asbury Theological Seminary 교수



Dr. Tommy Barnett  
Phoenix, Dream City Church 담임목사



## 세계적인 성경학자 통박사 조병호의 렉처리 코스 미주 성경통독 전문강사 과정



일시: 2022년 6월 27일(월) 2:00pm~7월 1일(금) 12:00pm

장소: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허병옥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총무단장)

\* 2950 Belfort Road, Jacksonville, FL 32216 / TEL: 386-235-7485 / tamuning@hotmail.com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강도사/전임전도사 (15명 정원)

회비: 800달러 (숙식 및 교재 제공) / 자격증 수여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통성경학교,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성경통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기타 소책자

주관: 성경통독원,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문의 및 신청: tongdok@hanmail.net

**강사: 조병호 박사**

성경통독원 원장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글로벌채리티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s  
하이이벨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석사)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2004년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 RGG(Relig in Geschichte und Gegenwart)에  
아티클 '세계기독교학생운동(Studentische Missionsbewegung)'을 등재  
2006년 영국 왕립역사학회(Royal Historical Society)에 스피커로 초청되어 발제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서 '통독'을 최초로 말했다.  
2007년 미래 목회자 인명 초청 기생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독한 재정향(Re-orientation)' 공동대표  
2010년 통독 매니페스토 컨퍼런스 대회장  
2014년 '통독성경 포뮬라(Formula for TongBible)'를 발표했다.  
2016년 통독바이블리지 통독성경학교 인터넷 120강의 강사 (www.tongbible.org)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2017 CONGRESS 스피커  
2021년 글로벌채리티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s  
2022년 통독바이블 앱 미국 론칭  
2022년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설립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2011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2005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신앙부문 최우수상 수상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2020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2022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목회자료부문 우수상 수상  
저서 《통솔 주석(전 2권,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번째 성찬식)》  
《통성경 길라잡이(개정중보판)》, 《통성경학교》, 《통성경학교 워크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외우 에피소드 70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통하는 레위기》, 《통하는 영적 예배》, 《선지자와 5대제국》  
《消失의帝國(中國 團結出版社/성경과 5대제국 중국판)》,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전쟁》, 《산구약 중간사》, 《성경통독과 통독신학》 등 50여종  
편찬 《근글자 일관일독 통독성경》, 《역사순 통독성경》

